

한일양국 초기 성서번역과정 비교*

- 표기와 한자어 수용방식을 중심으로 -

안 증 환**

(e-mail : ajw7340@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한자어 수용방식 및 정도 비교 |
| 2. 초기 성서번역에 나타난 표기 | 4. 결론 |

キーワード：初期の翻訳聖書(early translation of the Bible), 聖書における表記法(method of transcribing the Bible), 漢字語の受け入れ方の比較(method of accommodating Chinese characters), 固有文字と漢字(indigenous character and Chinese character), 個人訳(individual translation), 委員会訳(committee translation)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초기 성서번역 과정을 비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초기라 함은 성서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처음 번역되기 시작하던 20세기 초반까지를 가리키며, 이 때 두 나라 모두 성서번역의 초역과 개역 작업이 이어졌다. 두 나라 모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종교로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의 번역과정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성서 원문 자체의 연구가 아니라, 초기 성서번역 과정에 나타난 각각의 표기문제와 한자의 수용방식을 비교할 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전자는 한일 두 나라 모두 한자와 고유문자 등 복수의 문자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후자의 경우는 두 나라가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한

*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2015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만큼 새로운 외래사상이 번역 등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의미전달 수단으로 한자(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서의 원전은 구약성서가 히브리어이고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되어있다. 처음부터 이들 원전을 텍스트로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도 한국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성서를 번역했을 때는 그들의 번역을 돕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제대로 해독 가능한 외국어는 중국어였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물론 영어에도 능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선교사들의 성경번역에 참여한 것은 중국어 성서를 중간 텍스트로 한 번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으로서 각각의 성서 번역과정에서 한자어의 역할 및 수용방식 비교가 연구주제로서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일본어성서나 한국어성서 모두 초기역본에 한자 없이 각각 자국의 문자로만 번역된 성서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성서에 사용된 어휘 안에 상당수의 한자어의 존재는 당연한 바, 비교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우선 일본과 한국 각각에서 초기 성서가 번역된 과정에서 표기에 나타난 특징을 개관하고, 한자 수용상의 상이점 및 한자어 어휘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추적하기로 한다. 이번 연구에 자료가 된 성서는 다음과 같다.

일본¹⁾: 귀즐라프의 『約翰福音之伝(1837)』, N·브라운 『志無也久世無志与 1879』, J.C.헤본의 로마자 『旧·新約聖書(1880)』, 『明治訳(1880)』, 『訓点聖書(1880)』, 『大正訳(1917)』 등.

한국: 이수정역 “마가전신약복음서연회(1885, 1887)”, 로스역 “예수성교전서(1887)”, “국한문역(1906)”, “旧訳(1911년)”, 게일의 “新訳新旧約全書(1925)” 등.

2. 초기 성서번역에 나타난 표기

2.1. 일본 성서의 표기

1) N·브라운 『志無也久世無志与』를 비롯한 본고에서 인용한 일본의 초기 번역성서 출처: <http://www.meijigakuin.ac.jp/mgda/bible>.

성서가 일본어로 번역될 초기의 문자표기법은 다양했다. 우선 1837년 프러시아 출신 선교사인 규즐라프에 의해 처음 번역된 요한복음은 가타카나(片仮名)만으로 표기되었다.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에 관한 특별한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

(1) ハジマリニ カシコイモノゴザル、コノカシコイモノ ゴクラクトモニゴザル、コノカシコイモノワゴクラク。ハジマリニ コノカシコイモノ ゴクラクトモニゴザル。ヒトノナカニイノチアル、コノイノチワ ニンゲンノヒカリ。コノヒカリワ クラサニカ・ヤク、タ・シワ セカイノクライ ニンゲンワカンベンシラナンダ。(요: 1:1~5)

(始)りに賢い者ござる、この賢い者 極楽共にござる、この賢い者 極楽。始まりに この賢いもの 極楽共にござる。人の中に命ある、この命は 人間の光。この光は 暗さに輝く、ただしは 世界の暗い人間は勘弁しらなんだ。)2)

규즐라프의 요한복음은 규즐라프가 마카오에서 일본인 표류자 몇 명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저본이 명확하지 않고 표류자들이 오바리(尾張: 현재의 愛知県)라는 지방출신으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방언이나 오자 등 번역의 한계는 명백하게 드러나지만,³⁾ 표기상으로 보면 가타카나 표기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마침표와 쉼표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가나문자만으로 이어질 때 야기될 수 있는 의미전달의 혼선을 줄여주는 조치임에는 명확하다. 그리고 동일한 문자가 중복될 경우에 「カ・ヤク」의 경우에서처럼 문자 대신에 가운데 점 같은 부호를 쓰고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규즐라프 요한복음의 표기법에서 띄어쓰기 등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 단위가 단어나 문절 단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모호하다. 앞의 예문에서도 「カシコイモノゴザル」 「コノカシコイモノ」 「ゴクラクトモニゴザル」 등 대부분이 몇 개의 단어가 결합된 구나 절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라가나만으로 번역된 성서도 있다. 1879년 미국 침례교 파송 선교사였던 브라운(N. Brown)은 신약성서를 일본어 히라가나만으로 번역한 후, 「志無也

2) 번역은 ‘財団法人 日本聖書協会(2006), 『ギョツラフ訳ヨハネによる福音書』’에 의함(이하 동일) p3.

3) 앞의 책 pp.123~126.

久世無志与」라는 명칭으로 간행하였다.

- (2) はじめに ことば あり、ことばは かみと ともに あり、ことばは すな
 わち かみ なり。これ はじめに かみと ともに ありし もの なり。
 あらゆる ものは これに よりて なれり、なりし ものは ひとつとして
 それに よらで なりし もの なし。これに いのち あり、いのちは に
 んげんの ひかり なり。この ひかり くらきに てりて くらきは これ
 を うけざりき。(요1:1~5)

브라운역은 쉼표나 마침표 처리 그리고 띄어쓰기 단위 등 표기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하다. 다만 앞의 예문만을 볼 경우, 띄어쓰기에서 밑줄 부분 「かみなり」「ひかりなり」만이 문절단위에 위배될 뿐이다. 한편 브라운은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에는 로마자로 루비를 붙이고 있고, 한자어도 많지는 않지만 몇 곳에 나타난다⁴⁾.

- (3) ^{Lebibitowo} ^{Yohaneni} れびごとをよはねにつかわして (요1:19)

- (4) みつか ^{Galilaino} めに ^{Kanani} がりらいの かなに こんれい あり(요2:1)

- (5) なんぢらの ^{日 hiwo} せんぞ あぶらはむは わが ひを ^{日 hiwo} みる ことを よろこび (요8:56)

- (6) だれにても ^{しまい} かみの ^{しまい} みこころを ^{しまい} なす ^{しまい} ものは ^{しまい} わ가 ^{しまい} きやうだい ^{しまい} 姉妹
 (姉妹) ^{しまい} なり ^{しまい} は ^{しまい} は ^{しまい} なりと ^{しまい} い ^{しまい} ひ ^{しまい} た ^{しまい} ま ^{しまい} へ ^{しまい} り。(막3:35)

로마자 루비에서도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 첫 문자를 ‘Lebibitono’처럼 대문자로 처리하고, 일반명사인 경우는 ‘hiwo’와 같이 첫 문자도 소문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특히 위의 ‘姉妹’처럼 한자어가 핵이 되는 경우는 로마자를 위에 루비로 처리하고 아래쪽에 히라가나를 써 넣어서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복수

4) 요한복음에서는 8:56의 위 덧말로 표기된 ‘日’하나뿐이고, 마가복음에는 ‘書役, 會堂, 權威, 二千, 十二, 王, 千人, 二百, 代’등이 ‘姉妹’처럼 덧말이 아닌 핵으로 나타났다.

5) ‘Lebibitono’나 ‘hiwo’등 로마자 덧말에 조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표기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의 문자가 있는 일본에서 하나의 가나문자만으로 성서를 표기하려고 한 것은 일반대중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우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뒷날 N 브라운이 동료 선교사 J.C.헤본과 S.R.브라운, D.C.그린 그리고 오쿠노(奥野昌綱), 마쓰야마(松山高吉), 다카하시(高橋五郎) 같은 일본인 협력자 3인과 함께 구성했던 번역위원회에서, 번역하려는 성서의 표기가 한자와 가나문자 혼용으로 결정되자 N.브라운이 탈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⁶⁾

한편 로마자로 번역된 일본어 성서도 있었다. 주로 일본에 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어를 로마자만으로 표기하고 싶어 했던 당시의 움직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73년 헤본은 로마자 표기만으로 번역된 요한복음은 내놓고, 1892년에는 일본어 신구약성서 모두를 로마자만으로 번역했다. 헤본의 로마자 성경은 일본어 가나문자의 로마자 표기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헤본의 띄어쓰기는 문절단위가 아니라 자립어와 부속어를 거의 완벽하게 분리시킨 단어단위로 이루어진다.

(7) Hajime ni Kotoba ari, Kotoba wa Kami to tomo ni ari, Kotoba wa sunawachi Kami nari. Kono Kotoba wa hajime ni Kami to tomo ni ariki. Yorozu no mono kore ni yorite tsukuraru: tsukuraretaru mono ni, hitotsu to shite kore ni yorade tsukuraeshi wa nashi. Kore ni inochi ari; kono inochi wa hito no hikari nari. Hikari wa kuraki ni teri; kuraki wa kore wo satorazariki.

인용문 중 ‘tsukuraretaru(つくられたる)’나 ‘satorazariki(さとられざりき)’ 같은 술어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조사를 선행어와 분리하는 등 헤본의 띄어쓰기가 단어단위라는 점에서 브라운의 문절단위와 차별되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까지 본 것은 일본에서 가나문자 등 하나의 문자만으로 성서번역을 시도했던 초창기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초기 일본어 성서번역을 시도한 선교사들 대부분은 일본의 문자가 복수체계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각각의 문자에 서로 다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우선 1871년 J.

6) 浜島 敏(2011)、p.185.

고블의 마태복음이 그 실례가 된다. 고블의 마태복음은 문절단위의 띄어쓰기를 시도하고 있고, 가타카나에는 외래어 표기라는 그리고 히라가나에는 고유어 표기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자도 「神, 生靈, 預言者, 王, 浸水」처럼 소수의 양을 차용하고 있지만 루비를 달아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고블의 마태복음에서는 마침표 등의 문장부호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8) アブラハムの すへ ダビ드의 すへ イエウス キリストの けいづ(마1:1)

(9) イエツサイ ダビデ ^{おう}王を うむ ダビデ ウリウ의 つま より ソロモフ ンを うむ(마1:6)

고블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표기법은 1872년 헤본과 S.R.브라운이 공동으로 번역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한자어의 출현빈도를 크게 늘리면서 일본의 초기 성서번역의 표기문제에서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헤본과 브라운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일본식 표기법을 답습하는 한편으로,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외래어의 경우도 인명과 지명에는 밑줄을 각각 한 줄·두 줄 달리 긋는 방식으로 기타 외래어와 구분시키고 있다.

(10) ^{はじめ}元始に^{ことだま}言靈あり^{ことだま}言靈は^{かみ}神ととも^{ことだま}にあり^{かみ}言靈は^{かみ}神なりこの^{ことだま}言靈は^{はじめ}はじめに^{かみ}神ととも^{かみ}にあり(요1:1~2)

(11) ユダヤ의 人 ヨハン네에(요1:19)

(12) その つか는 され시 人는 パリ사이의 人なり (요1:24)

결국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성서의 다양한 표기법 논쟁은 1872년 S.R.브라운을 위원장으로 선교사 7명과 오쿠노(奥野昌綱) 등 일본인 번역협력자 4인으로 구성된 성서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가⁷⁾ 1880년 『引照 新約全書』라는 명치역을 발간하면서 일단락되고,⁸⁾ 이 전통은 2011년 일본 가톨릭교회에서 간행한 『原文校訂による口語訳聖書』에까지 이르고 있다. 1880년 명치역 성서

7) 海老沢有道(1989)、p212.

8) 동일한 성서번역위원회가 1881년 발간한 신약성서는 1880년 명치역 그대로를 한자와 가타카나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太初ニ道アリ道ハ神ト偕ニアリ道ハ即チ神ナリ…」

에 나타난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문자표기는 한자와 가나문자를 혼용하고 있다.

둘째, 한자에는 원칙으로 루비를 달고 있다.

셋째, 가나문자의 경우 가타카나는 외래어 표기, 히라가나는 고유어 표기로 구분시키고 있다.

넷째,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외래어에서 인명의 고유명사에는 한 줄의 밑줄을, 지명의 고유명사에는 두 줄의 밑줄을 긋되, 그밖의 외래어는 가타카나로만 표기한다.

다섯째, 띄어쓰기는 하지 않고, 마침표등의 문장부호는 없다.

2.2. 한국 성서의 표기

그렇다면 한국어 성서는 어떠했을까? 한국은 일본보다 성서번역이 몇 년 늦다. 일본의 명치역 간행이 1880년인데 비해, 한국어로 신약성서가 완역된 것은 1887년이므로 7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최초의 한국어 완역성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에 의해 번역된 “예수성교전서(이하, 로스역)”로, 로스는 1878년부터 만주에서 한국인 이응찬 등과 함께 성서번역을 시작해서 1887년 완역해냈다.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1882년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인데, 다음은 요한복음 첫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 (13)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하나님과함께하니도는곳하나님이라이도가처음에하나님과함께하니만물이말무암아다지어스니지운바는한나토말무암지은코지으며업느니라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이사롬의빛치되여빛치어두온디빛치우되어두온디는아지못하더라

로스역은 신약성서 전체를 순 한글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성서의 중국어 저본이 대표자역본인 『新約全書文理(1852)』인데도 한자를 하나도 삼입하지 않고 순 한글로만 표기되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⁹⁾. 일본에서 N.브라운 등이 가나문자만으로 성서를 번역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인한테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기 문자였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쳐서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누구

9) 『대한성서공회사 I』 (1993), p55.

나가 읽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한편 표기면으로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문장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부호가 하나도 없으며, 인명이나 지명을 비롯한 외래어를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번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로스역은 한국에서의 성서표기가 한글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띄어쓰기나 문장부호의 부재 등으로 의미전달상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이하 두 개의 문장을 예로 들어본다.

(14) 찌여밥팀례를버푸난요안니유더들에닐으려던호여갈오디(마3:1)

(15) 요안니의간증이이갓탄거시라유더인이예류살림에서제사와니위의사롬을보니
여물으되(요1:19)

어떻든 한국에서 성서의 문자표기는 1970년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성서번역에서는 한글전용이 절대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성서번역위원회역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자와 한글이라는 복수의 문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도 초기 번역과정에서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성서가 있다. 우선 1885년 이수정 개인역인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이하, ‘이수정역’)”가 그러하다.

(16) 신^신의^즈子^{예슈쑤}耶^{크리슈도스}蘇^{복음}基^{복음} 督^{복음}의^{복음}福音^{복음}이^{복음}니^{복음}그^{복음}쳐^{복음}음^{복음}이^{복음}라^{복음}預^{예언즈}言^{예언즈}者^{예언즈}의^{예언즈}記^{기록}錄^{기록}호^{기록}바^{기록}의^{기록}일^{기록}너^{기록}스^{기록}되^{기록}보^{기록}라^{기록}니
나^{사즈}의^{사즈}使^{사즈}者^{사즈}를^{사즈}네^{사즈}암^{사즈}히^{사즈}보^{사즈}니^{사즈}여^{사즈}써^{사즈}네^{사즈}도^도를^도갓^도추^도게^도호^도리^도라^도호^도말^도과^도갓^도치

위의 이수정역은 한자와 한글 혼용이며 한자에는 루비를 달았다는 점이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이 일본어 위원회역인 명치역과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명치역과 달리 이수정역에서는 성서 안에 있는 지명이나 인명 등 외래어는 모두 저본인 중국어 성서의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17) 이^{이두비}土^{이두비}買^{이두비}로^{이두비}셔^{이두비}도^{이두비}부^{이두비}터^{이두비}오^{이두비}며^{이두비}約^약但^약뵈^약그^약로^약셔^약도^약부^약터^약오^약며^약또^또호^또推^{두루스}羅^{두루스}와^{두루스}다^{두루스}못^{두루스}西^{세든}頓^{세든}의^{세든}所^{소속}屬^{소속}호^{소속}

스람들도그^형행^ㅎ시는바를듯고許多^ㅎ스람들리잇서나아오니(막3:8)

위에서 ‘以土買, 約但, 推羅, 西頓’ 등은 지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한자어들과 차별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1885년의 이수정역도 1887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에 의한 상임성서위원회(이하, 위원회역)에서 수정되면서 문자표기가 모두 한글로 바뀐다. 이처럼 한글로 문자를 통일시킨 성서번역은 1900년, 1919년, 1939년의 위원회역본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언더우드 등에 의한 이수정역본의 수정본이다.

(18) 이두미로서도브터오며요르단밭괴로서도브터오며또^ㅎ혼두로와다못시돈의속^ㅎ혼
사름들도그^형행^ㅎ시는바를듯고또^ㅎ혼허다^ㅎ혼사름들이잇서나아오니(막3:8)

이것 역시 로스역처럼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등이 없어 의미전달에는 부분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데, 이 점이 일본에서 가나문자만으로 번역된 성서들과의 차이점이다. 즉 2.1에서 언급된 대로 규즐라프나 N. 브라운 그리고 J.고블의 성서 등 가나문자만에 의한 번역에서는 띄어쓰기 등이 나타났던 것에 반해, 로스나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한글만으로 된 번역을 시행하면서도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초기 한국어 성서표기의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일반적이던 국한문혼용체 문장의 영향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한국의 국한문혼용체는 일본의 한자와 가나문자 혼용체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와 문법적 성격을 갖는 한글 사이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띄어쓰기 등이 없이도 의미전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다음은 1906년 간행된 “국한문 신약전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19) 太初에도가(或은言이라)有^ㅎ니도가上帝와同在^ㅎ매道는即上帝시라此도가太
初에上帝와同在^ㅎ야道로万物이造^ㅎ바되엇스니造^ㅎ物이도가없시는造^ㅎ거시
一箇도無^ㅎ니나生命이도에在^ㅎ니生命은人的光이라光이暗에照^ㅎ되暗이覺지
못^ㅎ더라

한글과 한자 혼용체가 지닌 이러한 성격 때문에 1925년 간행된 J.S. 게일의

개인역도 띄어쓰기 등을 하지 않으나 무난하게 읽혀진다고 볼 수 있다.

- (20) 太初에道가잇서하느님과갓치계시니道는곳하느님이시라이道가太初에하느님과갓치계심으로万物이이道로지은바되엇스니物件이道업시는지은거시흐나도업느니라生命이道에잇스니生命은사람의빛치라빛치어두은디빛최되어두은거시찌듯지못흐더라

즉 한글만의 성서에 띄어쓰기가 없는 것은 이러한 국한문 혼용체를 한글 전용문체에도 적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¹⁰⁾. 한편 문장표기에서 보는 한국어 성서의 특징은 1993년 간행된 “개역개정”에 이르기까지 마침표나 인용부호 등의 문장부호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¹¹⁾. 다만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구분하는 표기만은 저본 중 하나인 중국어 성서를 본 때, 1887년의 이수정역 수정본을 시초로 초기 번역본 모두에서 나타난다. 마가복음 1장5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21) 拳猶太地与耶路撒冷人俱出就之悉在約但河受洗礼於約翰各認己罪 (브리지만-컬벗슨역)
- (21a) 온유대이싸와다못예루살넌사람이다와셔요르단하슈에서요한의게세례를밧고 각각제죄를즈복흐더라(이수정 수정본)
- (21b) 온유대싸와예루살넌사람이다나아가 각각제죄를즈복흐고요단강에서요한의게세례를밧더라(1911)
- (21c) 윈유대地와예루살넌人이皆就호야各各渠罪를自服호고요단江에서요한의게洗礼를受호더라(국한문)
- (21d) 온유대와예루살넌스람이다나아가各其罪를自服호고요단江에서요한의게洗礼를밧더라(게일)

지금까지 살핀 한국어 초기 성서번역본에 나타난 표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는 번역초기부터 한글전용이 우세했다.

10) 한국어 성서의 띄어쓰기는 1911년 간행된 “旧訳”이라 불리는 위원회역부터 실현된다.

11) 한국어 성서에 문장부호가 출현하는 것은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2001) 등 문체를 구어체로 바꾼 뒤로부터이다.

둘째 한글전용 성서에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셋째 마침표나 쉼표, 인용부호 등의 문장부호가 보이지 않는다.

넷째 인명 지명 등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등등

3. 한자어 수용방식 및 정도 비교

본 장에서는 일본의 명치역과 이수정역을 주된 텍스트로 해서 두 나라의 초기 성서번역과정에 나타난 한자어의 수용과정을 비교한다. 목적은 한국은 한자를 음으로만 수용하는데 반해 일본은 음과 훈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현상과 그에 따른 차이를 보는 데에 있다. 명치역이 위원회역이고 이수정은 개인역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브리지만-컬벗슨역의 중국어 성서를 주된 저본으로 채택했다는 공통점을 우선했다¹²⁾.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하면, 초기 성서번역에서 한자어의 수용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한국의 초기 성서번역이 중국어 저본을 크게 의존했다는 것은 일본의 훈점성서나 이수정의 현토가 달린 성서, 혹은 한국의 국한문성서만 보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이는 선교사들의 번역을 돕던 일본이나 한국의 식자층이 한문에 능통했었다는 데에 따른 추론이다. 일본에서 훈점성서는 1878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국한문성서는 1906에 간행되어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둘은 각각 식자층들을 위한 역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선교사들의 번역을 돕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식자층으로서 중국어 성서를 저본으로 해 번역을 도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한자어의 수용에 관한 차이를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일본의 훈점성서와 한국의 국한문성서의 마가복음 1~3절을 인용한 것이다.

(22) 神之子^{イエス}耶穌^{キリスト}基督之福音其始也如在預言所錄云^シ視^ガ哉我遣我使者於爾前以備爾道^ノ
 野^ニ有人声呼云^テ備主道直其徑^{クヘノヲ} ^{セヨ} ^ヲ

12) 앞의 책, p27.

○ ‘神’이나 ‘子’와 같은 경우로 한자는 그대로 수용하되, 수용방식이 다른 경우이다. 즉 한국은 음으로 읽어 수용하고 있고 일본은 한자를 훈으로 읽어 수용하고 있다.

○ ‘始’의 경우로 한국은 한자 없이 훈으로 풀어서 수용하는 반면에, 일본은 한자 ‘始’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훈으로 수용한다.

○ ‘基督’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로 이수정역은 한자를 유지하면서 원음(原音)을 루비로 달고 있는데 반해, 명치역에서는 가타카나를 써서 구분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두 언어 사이에 한자의 다양한 수용방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마지막 예의 ‘基督’에 대한 한국어 표기는 이수정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생경한 것을 번역해야 하는 번역자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수정은 인명(25a)과 지명(25b)만이 아니라 성서의 특수한 용어(26c)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시키고 있다.

(25a) ^{예수}耶穌 vs イエス、^{요한}約翰 vs ヨハネ、^{西门}西門 vs シモン、^{모세}摩西 vs モーセ、
^{제비덕오스}西庇太 vs ゼベタイ、

(25b) ^{에루살렘}耶路撒冷 vs エルサレム、^{유대}猶太 vs ユダヤ、^{약단}約但 vs ヨルダン、^{가벨나움}迦百農 vs
カペナウム、

(25c) ^{크리슈투스}基督 vs キリスト、^{밥테스마}洗礼 vs バプテスマ、^{사탄}撒但 vs サタン、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저본 한자의 수용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유형 전부는 아니다. 이에 필자는 앞의 (25)와 같은 특수한 분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다음의 일곱 개 유형을 두 나라가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 유효한 비교유형으로 추출해 보았다. (C: 저본의 한자어)

1유형(C=J=K). C를 한일 모두 음으로 수용한 경우.

2유형(C=K≡J). C를 한국은 음으로, 일본은 훈으로 수용하는 경우.

3유형(C=K∞J). 한국은 C를 음으로 수용하나, 일본은 한자어를 바꿔 훈으로 수용하는 경우.

4유형(C=J≠K). 일본은 C를 음으로 수용하나, 한국은 한자 없이 훈으로 수용하는 경우.

5유형(C≡J≠K). 일본은 C를 훈으로 수용하나, 한국은 한자 없이 훈이나 다른 단어로 교체해서 수용하는 경우.

6유형(C≠J=K). 한국과 일본의 한자어는 동일하나, C와는 다른 경우.

7유형(C≠J≠K). 한국과 일본 모두 자체의 언어문화에서 C의 대응어를 채택한 경우.

이하 각각의 유형에 속한 단어들의 조사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제1유형에 속하는 것은 1장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총어휘 67개 중에 10개로 많지 않았다¹³⁾. 품사에서는 대개 명사였고, ‘命’ 하나만이 동사로 기능하고 있었다. 한편, 한자어를 훈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짙은 일본어 쪽에서 보면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은 ‘兄弟, 門, 四方’처럼 이미 완전히 일본어 안에 정착된 단어들 외에 ‘福音, 主, 聖靈, 會堂, 祭司’ 등 성서가 번역되면서 처음 소개되는 단어들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제1유형(C=J=K)>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1	福音	福音(ふくいん)	福音(복음)
1-3	主	主	主
1-8	聖靈	聖靈	聖靈
1-13	四十日	四十日	四十日
1-16	兄弟	兄弟	兄弟
1-21	會堂	會堂	會堂
1-28	四方	四方	四方
1-33	門	門	門
1-44	祭司	祭司	祭司
	命	命ず	命하다

둘째, 제2유형은 동일한 한자어를 한국은 음으로 수용하고 일본은 훈으로 수용하는 유형으로, 한자수용방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神, 道, 罪’ 등 일자(一字) 명사만이 아니라 ‘蝗虫, 声名, 祈禱’ 같은

13) 인명 지명 등의 특수 어휘나 양이 많은 제7유형의 일부는 제외시켰다.

단어나 ‘伝, 宣’등의 동사 어휘에서도 발견된다.

<제2유형(C=K≡J)>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1	神	神(かみ)	神(신)
	子	子(こ)	子(죤)
1-2	道	道(みち)	道(도)
1-4	罪	罪(つみ)	罪(죄)
	赦	赦(ゆるし)	赦(사)흙
1-6	蝗蟲	蝗蟲(いなご)	蝗蟲(황충)
1-11	者	者(もの)	者(죤)
1-14	後	後(のち)	後(후)
	神國	神の國(かみのくに)	神國(신국)
	傳	傳(つたふ)	傳(전)ㅎ다
1-21	教	教(をしへ)	教(교)
1-27	鬼	鬼(おに)	鬼(귀)
1-28	聲名	聲名(きこえ)	聲名(성명)
1-35	祈禱	祈禱(いのり)	祈禱(기도)
1-39	宣	宣(のぶ)	宣(선)ㅎ다

세 번째 유형 ‘C=K∞J’는, 일본어 쪽에서 보면 제2유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저본의 한자어를 음으로 수용하나, 일본은 저본 한자어의 의미를 수용한 뒤에 그에 맞는 한자를 다른 것으로 교체시켰다고 볼 수 있다. 명사나 동사에서 모두 발견되며, ‘逐鬼’를 ‘鬼を逐出す’로 수용한 것은 단어를 1대 1로 수용하는 축자역이 아닌 내용으로 수용하는 의미역으로 볼 수 있다.

<제3유형(C=K∞J)>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2	使者	使(つかひ)	使者(사죤)
1-10	聖靈	靈(みたま)	聖靈(성녕)
1-13	處	在(を)る	處(처)ㅎ다
1-16	行	步(あゆめ)る	行(행)ㅎ다
1-30	或	或人(あるひと)	或(혹)
	妻之母	岳母(しうとめ)	妻母(처미)
1-39	逐鬼	鬼(おに)を逐出(おひいた)す	逐鬼(축귀)ㅎ다

네 번째 유형은 저본의 한자어를 일본은 음으로 수용하나, 한국은 한자 없이 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그 배경은 한국이 한자어를 훈으로 수용하는 예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한자어를 음으로 수용하는 예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4유형(C=J≠K)>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11	天	天(てん)	하늘
	愛子	愛子(あいし)	사랑하느 아들
1-15	信	信(しん)ず	믿다

제5유형은 수용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휘들을 갖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저본의 한자어를 훈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저본의 한자를 그대로 남겨두지만, 한국은 ‘처음(始)’처럼 한자 없이 풀거나 ‘相關(与)’처럼 다른 한자어로 교체해서 수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제5유형(C≠J≠K)>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1	始	始(はじめ)	처음
1-2	錄	錄(しる)す	기록하다
1-4	悔改	悔改(くいあらため)	뉘우쳐고침
1-6	皮帶	皮帶(かはおび)	가죽띠
	野密	野密(のみつ)	野密(드을쌀) ¹⁴⁾
1-9	當時	當時(そのころ)	이때
1-10	降	降(ふ)る	하강하다
1-12	野	野(の)	드을
1-13	試	試(こころみ)る	시험하다
1-15	期	期(とき)	기약
1-16	漁者	漁者(すなとりびと)	어부
1-20	傭人	庸人(やとひびと)	머슴
1-24	與	與(かかはり)	관련
1-26	拘攣	拘攣(ひきつけ)る	오그릇쓰리다
1-31	供事	供事(つか)ふ	봉양하다

	婦	婦(をんな)	지어미
1-33	邑	邑(まち)	고을
1-36	跡	跡(あと)	뒤
1-40	求	求(ねが)ふ	請히다

여섯 번째 ‘C≠J=K’유형은 일본과 한국이 음으로 수용하는 동일한 한자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 한자어가 중국어 성서의 저본과는 다르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로 ‘權, 証’처럼 일자(一字) 단어에서 보인다.

<제6유형(C≠J=K)>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2	預言	預言者(よげんしや)	預言者(예언자)
1-6	駝	駱駝(らくだ)	駱駝(약대) ¹⁵⁾
1-27	權	權威(けんゐ)	威權(위권)
1-44	證	證據(しやうこ)	證據(증거)

마지막 제7유형은 가장 진화된 수용방법으로 저본의 단어가 갖는 의미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고유의 언어문화에 맞는 단어로 교체해서 수용하는 유형이다.

<제7유형(C≠J≠K)>

장-절	중국어저본	明治譯	이수정 언휘
1-16	海濱	湖の邊(みづうみのほとり)	海邊(히변)
1-22	士子	學者	선비
1-37	衆	衆人(ひとびと)	몫사람
1-40	癩者	癩病(らいびやう)のもの	문둥病人(병인)
1-7	宣	宣傳(のべつた)ふ	頒布(반포)히다
1-12	導	往(ゆか)しむ	引導(인도)히다
1-13	服事	事ふ(つか)ふ	侍從(시종)들다
1-19	進	進行(すすみゆ)く	가다
1-24	敗	滅す(ほろぼ)す	致敗(치패)히다

14) 이수정역에서 ‘野蜜’의 ‘드을술’ 표기는 초기 성서표기에서도 드문 혼독의 일종이다.

15) 이수정역에서 ‘駱駝’의 ‘약대’ 표기도 혼독의 일종이다.

이상으로 초기 성서번역과정에서 중국어 성서 저본의 한자어가 한국과 일본에 수용되는 경위를 몇 개의 유형설정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즉 한국은 저본과 동일한 한자어 그대로를 수용할 때 유형 1,2,3에서 보듯이 음으로만 수용하는 반면에, 일본은 음과 훈 양쪽을 수용하되 유형 1,4와 같은 음으로의 수용보다 유형 2,5와 같은 훈으로의 수용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한국은 저본의 한자어 32개를 그대로 음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은 13개만 음으로 수용하고 34개는 한자어를 유지하면서 훈으로 수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한자와 고유문자가 혼용된 자료의 비교만이 아니라, 현대어에서도 두 언어의 한자어 표기법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한국과 일본에서 초기 번역된 성서들을 자료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에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성서가 처음 번역될 때의 문자를 비롯한 표기법을 비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 언어권에서 성서를 번역하면서 중국어 저본의 한자어가 각각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하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첫째, 표기법 비교이다. 한국과 일본은 한자문화권으로서 문자체계가 각각의 고유문자인 한글과 가나문자 외에 한자도 식자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성서번역은 두 나라 모두 고유문자만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837년 규즐라프의 요한복음이 그렇고, 1871년 J.고블의 마태복음과 1879년 N.브라운의 개인역인 신약성서도 한자어를 극히 제한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광의에서 가나문자 전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887년 완역된 로스역 신약성서가 완전 한글전용이고, 1885년 이수정의 ‘마가복음 언해’의 경우는 한자와 한글 혼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1887년 한글전용으로 수정되면서 한국어성서에서 한글전용이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된다. 이들 고유문자만으로 번역이 시도된 초기 번역성서의 표기를 비교하면, 일본은 어떠한 역본이 되었든 띄어쓰기를 하고 있고 N.브라운역은 마침표나 쉼표 등의 문장부호도 거의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다. 반

면에 한국의 초기 한글전용 역본에서는 인명 지명 등을 제외한 기타 문장부호는 어느 역본에서도 일체 발견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었다. 초기 한국어 성서의 표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당시 유행하던 국한문혼용체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어 성서 표기는 위원회역인 명치역부터 가나문자와 한자의 병용으로 바뀌면서 문장 안에 보이던 띄어쓰기 등 일체의 문장부호가 없어진다. 다만 일본의 초기 성서번역에서 괄목할 만한 표기의 특징으로는 명치역부터 한자어에 루비를 달고 있다는 점으로, 이것은 일본어 성서표기의 관행이 되어 현재까지도 이른다.

다음은 명치역과 이수정역을 통해 본 한자어 수용과정에 관한 비교이다. 한국은 저본의 한자어를 수용할 때 해당 한자를 음으로만 읽어 수용한 데에 반해, 일본은 음과 훈 양쪽으로 읽어 수용한 현상을 유형화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 결과, 이수정 역본에서는 ‘野蠻’ 같은 한자어를 ‘드을쑈’로 읽는 특별한 예어가 있었으나, 표출된 한자어는 품사가 무엇이 되었던 음으로 읽어 수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일본의 명치역 성서에서는 표출된 한자어가 음으로 읽히는 것보다 훈으로 읽히는 것이 월등히 많아, 한국과의 수용방법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훈점성서와 한국의 국한문 성서의 비교만으로도 확인가능하나, 본고의 의미는 유형설정과 유형에 따른 밀도비교를 통해 그 정도의 차이를 고찰했다는 데에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어-

(성서)

로스역(1887), “예슈성교전서”

이수정(1885), “마가전 신약 복음서언회”

이수정(1887), “마가의전훈복음서언회”

게일(1925), “新訳新旧約全書”

국한문 新約全書(1906)

개역역 성경(1938)
공동번역성서(1977)
표준새번역성서(2001)
貫珠聖經全書簡易國漢文 한글판(1964)

(저서 및 논문)

대한성서공회사(1993), 성인문화사, p27, p55, p203.
민영진(1984), 『國訳聖書研究』, 성광문화사
정길남(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일본어-

(성서)

ギョツラフ訳 『約翰福音之伝(1837)』
財団法人 日本聖書協會(2006), 『ギョツラフ訳ヨハネによる福音書』, 泰成印刷
明治訳 新約全書(1880. 明治13)
大正訳 新約全書(1917. 大正6)
J.C.ヘボン(1880), 로마자版 『旧·新約聖書』
N.브라운(1879), 新約聖書の全訳 『志無也世無志与』
松山高吉(1880), 訓点 『新訳聖書』,ブリッジマン·カルバートソン版

(저서 및 논문)

浜島 敏(2011), 『日本語聖書も「神の言葉」』, キリスト新聞社. p185.
門脇 清·大柴 恒(1983), 『日本語聖書翻訳史』, 新教出版社. p98.
海老沢有道(1989), 『日本の聖書』, 講談社. p212.
長沢志穂(2014), 「明治期聖書和訳にみられる漢学の影響」, 『南山宗教文化研究所研究
所報24』
松本隆(2015), 「明治文語訳マルコ伝福音書とその口語改訳版の用字用語を比較す
るための基礎資料」, 『日本研究センター教育研究年報 4』

-인터넷 자료-

<http://www.meijigakuin.ac.jp/mgda/bible>
<http://www.chinesetheology.com/OldChineseBible.htm>
<http://zh.scribd.com/doc/31578594/%E8%A3%A8%E6%B2%BB%E6%96%87-%E5%85%8B%E9%99%9B%E5%AD%98-%E8%AD%AF-1864-%E5%90%8C%E6%B2%BB%E4%B8%89%E5%B9%B4-%E6%96%B0%E7%B4%84%E5%85%A8%E6%9B%B8-Elijah-Coleman-Bridgman-Michael-Simpson-Culbertson>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1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 旨 >

韓日兩國における初期の聖書翻訳過程の比較

安増煥

本稿では、韓国と日本で、初期に翻訳された聖書を対照資料にし、次の二点が比較分析されている。一つは聖書に使われた文字を中心とする表記法に関して、もう一つは中国語底本からの漢字語の受け入れ方の比較である。研究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通りになる。まず、表記法の比較のことである。最初、聖書が翻訳されるころ、二国の文字体系は漢字と各々の固有文字という複数の文字が使わ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両国共に最初の聖書では固有文字だけをもって表記させようとする動きが強かったとみられる。それが、聖書の完訳段階に至っては異なる在り方を示す。つまり、韓国の方ではそのまま固有文字のハングルだけをもって表記させる傾向が強まるのに対して、日本では固有文字の仮名文字と漢字を混用させた形が取られるようになる。次は、底本の中国語聖書からの漢字語受け入れの比較結果である。韓国はごく特殊のものだけを除いて底本の漢字語すべてを音として受け入れているが、日本は最初から音と訓に分けて受け入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このことが著しい差として現われたのであるが、さらに、日本の明治訳では訓としての受け入れが音の方をはるかに上回っていたことを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現象は韓国の『国漢文新訳聖書(1906)』と日本の『訓点聖書(1880)』の比較を通じても再確認できたのである。

A Comparison of the Process of the Early Translation of the Bible in Korea and Japan

An, Jeong-whan

This paper has followed the subject of studying the Bible translated early in Korea and Japan, and provid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llowing two. One concerns notation centering on ancient scripts used in the Bible, the other is about a comparison of the process of accepting Chinese words in the Chinese Bible which is a source book.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notation. As the Bible was translated at first, there was a strong movement for the two countries to translate the Bible only in indigenous characters. However, when a complete translation phase reached, the two countries began to show different aspects. That is, while Korea had a strong tendency to write it only in Hangeul, the Korean alphabet, Japan took the form of using Kana letters, Japanese own letters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Next, it is about the comparative outcome of the process of accept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Chinese Bible which is a source book. It was confirmed that Japan accepted all Chinese characters separating Sound and Meaning from the beginning while Korea accepted them only as Sound except for a very few. This must be a noticeable difference as a relative characteristic shown in the two Bibles. It was also verified that in case of the Japanese “Meiji Translation”, the Chinese characters accepted as Meaning far exceeded those accepted as Sound. This phenomenon was reconfirmed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New Testament(1906)” and the Japanese “Kunten Bible(1880)” .